2023 감리교회 세계선교대회

사역별 발제 & 분과토의 자료

목록

1. 현지교회개척 - 김종진 (몽골)
2. 현지교회협력 - 배경식 (탄자니아)
3. 신학교 - 김대균 (인도)
4. 비즈니스 - 강기종 (스리랑카)
5. 한인교회 - 양대순 (남아프리카공화국)
6. 교육 - 김교묵 (태국)
7. 팀협력 - 남창기 (필리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사역별 발제 ① 현지교회개척

『 지도력의 변화에 따른 출구전략에 대해서 』

김종진 선교사(몽골)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단일한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이다'
C. Peter Wagner

한국교회의 선교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개척에서 큰 결실을 하고 있다. 88 서울올림픽 이후 확산된 한국 선교의 역사도 이제 30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 글은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력을 준비하고 이양하고, 빠져 나와야하는 선교사들의 전략에 대한 것을 소재로 삼았다. 교회를 개척하여 다양하게 사역을 발전시켜나가는 한국 선교사들중에 현지인의 지도력을 배양하고 그들과 동역하고, 그들에게 유무형의 선교자산을 위임하고 빌드업(build up)한 많은 모델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1.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지도력 변화

NO	지도력의 변화에 따른 선교지 교회개척 시기 구분 및 해당사역		
1	Pioneer 개척자	선교사 주도시기[1)]	장소, 시기, 이름, 예배형태, 전도, 전도대상선정
2	Parent 부모		예배, 교육, 양육, 부서별사역, 지도자선정 교육
3	Partner 협력자	자치시기	선교사와 현지인 지도력 전환, 혼재, 위임, 재정관리 현지인에게 사역의 기획 실행의 기회
4	Participant 참여자	자립시기	교회의 지도력, 재정, 기획이 현지인에게. 요청이 있을 때에만 선교사는 사역에 참여한다.
5	Harold Fuller	김종진, 선교현장 교회의 개척과 자립, 케노시스. 2019	

1) 선교사 주도시기, 자치시기, 자립시기의 구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한국감리교회 역사구분을 참고로하여 이론을 정립한 것이다.
기감 선교사주도시기 1885-1930
자치시기 1930-1968
자립시기 1968-현재

2. 교회개척의 입구전략과 출구전략(이양)

선교지에서 교회개척을 할 때(입구)는 그 시작점에서 출구전략(이양)을 염두에 두어야 여러가지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이 분명치 않을 때에 선교사의 지나친 보호나 주도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지인의 지도력이 자라지 못하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현지 지도자들이 자라나게 될 수 있다. 교회의 구조적인 건강한 상태는 현지인들에게 교회의 지도력과 모든 결정 과정을 이양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선교사는 초기부터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출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1) 교회를 영적인 면에서 지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력을 양성해야 한다. 신학교 및 교인 양성 시스템
2) 현지인에 의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재정의 자립은 현지인이 헌금해야 실현될 수 있다. 재정의 자립이 없으면 선교지는 오랫동안 선교사(선교기관)에게 의존된 형태의 교회가 될 수 있다. 헌금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3) 선교사가 소속된 한국교회들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형성해 놓은 유무형의 재산들을 복음을 위한 목적으로 영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한다. 법인의 설립 및 행정조직을 통해 선교지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출구전략이 실패하는 몇 가지 이유들

1) 빈번한 선교지도력의 교체
2) 이양과 출구전략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3) 때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5. 현지인 지도자들의 리더쉽 양성을 위해서

1) 교인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와 더불어 실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현지인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고 시행하는 권한을 위임하고, 사역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역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선교사의 준비된 부재가 때로는 필요하다.
4) 이양은 너무 빨라도 늦어도 안된다. Timing이 중요하다.

【 결론 】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의 최종의 꿈은 무엇일까?’ 현지 교회의 일꾼들이 자라나서 스스로 자립 자전 자치하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빚을 갚고 선교의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선교지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 넘치는 사랑보다는 조금 절제되고 기획된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바란다.

사역별 발제 ② 현지교회협력

『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

- 요한복음 1:23 -

배경식 선교사(탄자니아)

들어가며

선교사의 사역지와 현장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기에 탄자니아에서 경험한 현지교회 협력을 모든 선교지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힌다. 선교사와 현지교회가 어떤 협력관계(Partnership)를 형성하는가에 따라 선교의 지속성과 안전성 그리고 자립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 탄자니아 선교사로서 현지교회 협력한 내용들을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탄자니아 선교사로서 준비하며 현지인 지도자(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양육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교회 개척이 중심이었던 1세대 선교사와 달리 우리는 2세대 선교사로서 새로운 선교 베이스(기지)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역지에 협력하고자 했다.

탄자니아에는 1991년 KMC선교사들이 세운 탄자니아감리교회 TMC가 있고, 1986년 케냐감리교회에서 시작된 탄자니아감리교회 MCT가 있었으며, 그 외에 콩고UMC를 통해 시작된 감리교회, 자유감리교회등 여러 감리교회가 정부에 등록되어 세워져 있었기에 현지교회와의 협력이 가능했다.

2008년 목사 안수를 받고 탄자니아에 파송 되었다. 그렇게 탄자니아 127개 종족 가운데 하나인 마사이족 선교가 시작되었다.

현지교회와의 선교협력의 긍정적인 면은 노동허가서와 종교비자를 현지교회를 통해 받게 되어 안정적으로 선교지에 체류할 수 있으며, 현지교회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사역할 수 있다. 그런 반면 부정적인 면은 선교사 중심의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사역이 어렵고, 비자를 빌미로 선교사(의 사역을)를 조정하고 이용하려는 현지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지 리더십과 선교사 리더십 간의 충돌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부정적일 수 있다.

나는 현지교단과의 선교협력으로 인해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경험해 본 선교사이다. 이미 세워진 교단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고 현지교회에서 사역의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비자를 발급해 주던 현지교단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비자 취소가 더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탄자니아에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아픈 경험이 있다.

2013년 선교지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선교사는 언제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선교지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새로운 선교 단체를 세워 새롭게 독립적인 사역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선교사가 떠나도 사역이 지속되도록(복음 전파가 지속되도록) 현지인 지도자를 세워야 하고, 세워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현지 교단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케냐감리교회를 통해 탄자니아에서 시작된 MCT 교단으로부터 비자를 받고, 또 다시 협력 선교를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아루샤 롱기도 지방회의 감리사로서 12개 마사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선교의 역사가 쌓이면서 선교사와 현지교회 사이에 어느 정도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어간다. 현지교회 협력은 선교사와 현지교회가 어떤 협력관계(partnership)를 형성하는가에 따라 선교의 지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자립에까지 이를 수 있다.

협력관계가 선교사 주도의 협력관계인지, 현지교회 주도의 협력관계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따라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현지교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현지교회 주도의 선교협력관계로 이루어진 사역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사역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궁극적으로는 현지교회 스스로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현지교회 스스로 결정한 사역이 만개한 화려한 꽃 같지는 않을지라도 꾸준하게 피었다가 지는 들의 꽃처럼 그 자리를 여전히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된다.

1. 선교사 주도의 협력관계

1) 기증받은 교회 땅을 정부와 지역사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토지를 현지교단 이름으로 등록한 사례

교회나 학교, 지역개발을 위해 땅을 기증 받는다. 마사이의 땅은 널린 게 땅이며, 아직 값이 매겨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 그러한 숲 속 오지 마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빈 광야의 땅을 문서화하여 여러 절차를 거쳐 현지교단이름으로 토지 등록을 신청한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걸쳐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때, 지역사회와 군청의 토지과 담당자는 내게 '값이 매겨지지 않은 널린 게 땅인데 무슨 땅 문서가 필요하다고 돈을 들여 등록을 하려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선교사가 떠났을 때 행정에 약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토지 등록은 반드시 필요했다. 교회와 성도, 목회자들조차 토지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문서없는 마사이 땅을 기증받아 교회와 유치원 그리고 학교를 세운 땅에 토지등록을 교단 이름으로 하는 것도 선교사의 임무라 생각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지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토지 등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이후 교회를 개척할 때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땅을 기증한 동네와 이야기하여 토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준비해 온다.

그리함으로 앞으로의 재산권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게 하였다. 선교사는 현지에서 재산권 보호를 해야 한다.

2) 마사이 지역에서 벗어나 다른 환경에서 타종족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목회 교환 프로그램 진행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마사이들은 타 부족 출신을 리더나 목회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마사이족이라는 목회적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단 감독(Bishop)과 협의하여 다른 지역에 일정기간 파송하여 교단의 행정을 배우게 하며 목회적 안목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다른 부족 출신의 목회자들과 교제를 통한 교류를 갖게 하고, 교단에서 주관하는 여러 모임과 회의를 참석하도록 독려한다. 감리교단의 목회자라는 소속감과 행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지 목회자들 스스로 교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른 종족 출신의 목회자가 마사이 지역에 와서 목회하는 프로그램도 교단 감독이 제안을 했고 고려 중에 있다.

2. 현지교회 주도의 협력관계

1) 현지교단의 원칙에 따른 목회자 양성과 교육

신실한 현지 목회자를 만나서 함께 사역하는 것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큰 복 가운데 하나이다. 선교 사역에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속성으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목회적 소명이 있는 현지인에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단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목회자로 양성해야 한다.

세워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가 목회적 소명이 있으면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목요성경학교에 나와 1,2년간 훈련을 받게 된다. 1,2년이 지나면 계속해서 목요성경학교에 출석하면서 평신도 설교가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다. 평신도 설교가로 2,3년간 교회를 섬기다가 신학교에 가길 원하면 담임 목회자 뿐 만 아니라 지방 목회자들의 추천과 교회의 동의를 받아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배운다. 신학을 마친 이후에는 교단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진급 과정(3-5년)을 거쳐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된다.

아루샤 롱기도 지방회는 16년동안 4명이 교단을 통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 중 1명의 목사는 주술행위를 하여 교단징계위원회를 통해 목사 자격이 박탈되었다. 선교사가 현지 목회자의 목사직 박탈에 관여하였다면 반발이 일어났을 일인데 교단의 교리와 장정에 따른 결정이었기에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정리 되었다. 그래서 현재 절차에 따라 교단으로부터 안수받은 목사 3명뿐이며, 전임사역자가 8명, 7명의 신학생, 전도부인 여성사역자 56명과 함께 사역하고 있다.

2) 절차를 따르고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현지교회(교단) 지도자의 권위 인정

소속된 교단에 대한 소속감과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도록 기회가 되는대로 마사이 지역에서 1,000km 떨어진 교단 본부가 있는 무완자(Mwanza)에서 감독을 초청하여 청소년집회, 남녀선교회 연합집회 또는 봉헌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지교회와의 협력을 하게 될 때, 선교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닌 현지교회의 절차를 따르고 기다려야 하고 더디 이루어지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현지교회의 계획과 진행 과정을 따름으로써 현지교회(교단)와 지도자의 권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 현지교단의 대표자인 감독은 윗사람, 선교사인 나는 감독남 권위 아래 있는 아랫사람, 선교사라는 생각을 하며 선교하고 있다. 리더가 선교사가 아닌 현지인으로 세우고 있다. 선교사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선교지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교회 전체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현지 목회자를 통한 사역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위한 생활 지원금과 학교 보내기 장학금을 지원할 때 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아동을 추천 받아 선정한다. 그리고 장학사업은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가 선출되어 관리하고 매월 아동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지원금, 장학금을 지원 받기 위해 선교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

4)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공립초등학교 세우기

학교가 없는 동네가 학교를 세워 교육의 혜택을 마련한다.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물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지도자 발굴과 같은 거창한 목표까지는 나에게는 없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에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기에 마사이 지역에 환경에 따라(학교등록과 교사수급 등) 사립 학교가 아닌 공립초등학교를 세워 나가게 되었다.

학교가 없는 마을에 학교를 세워, 탄자니아 국어인 스와힐리어를 사용하고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선교사인 내가 학교를 세우는 목적이다. 학교등록, 교사수금,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에 시작은 다같이 함께 하고, 선교사는 학교 건물을 후원하고, 교단 현지 목회자들이 채플과 성경수업을 담당하고, 정부에서는 선생님을 보내며 운영을 맡는 식으로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현지교회와의 협력이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확대 되고 있다.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초등학교 세우기는 것은 내가 학교에 대한 전문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목회자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기억하며 남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가진 소명과 달란트 내 것으로 선교하고 있다.

5) 전도부인 훈련

선교사 위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요구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수동적인 선교지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능동적인 사역자로 세워 나가야 한다.

그 예로 전도부인 훈련은 현지교회의 요청에 의해 시작 되었다. 마사이문화는 남자가 여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여성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목적 아래 시작된 훈련 프로그램이다. 교회안에서 여성 역할 강화를 위해 전도부인(Bible Woman) 훈련하고 있다. 마사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마사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 한국기독교 초기의 교회부흥과 영적성장에 있어서 공헌한 전도부인(Bible Woman)을 마사이에 세워 '여성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교회안의 남녀. 성비가 여성이 80%를 차지 하고 있지만, 교회안에서 조차 지위와 역할이 미미한 마사이 여성들을 위해 지도력 강화를 위한 전도부인 훈련을 계속해 실시해 나갔다.

특정 교회에 모여 훈련을 받던 여성들은 스스로 다른 교회들을 순회하며 전도하겠다고 결정하고, 지금은 일년에 여섯 번에 걸쳐 2박 3일간 전도집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교회마다 5-6명씩 세워진 전도부인들이 담임목회자와 함께 여성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전도부인들은 훈련중에도 계속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있다. 젖먹이 아기들을 업고 나와 성경을 배우며 이곳 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성들이 마사이 광야에 복음의 소리로 채워가고 있다.

3. 결과

현지인들이 해석하고 결정하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키고 따른다.

탄자니아 마사이 지역에서 하는 모든 일은(교회 개척과 건축도) 마사이 공동체의 동의가 있어야 정부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다. 롱기도 군청에서 NGO 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 나이보르소티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해 주겠다며 마사이 공동체의 동의를 구했다. 형식적인 동의를 구하는 일이라 정부에서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고, 더욱이 물과 관련된 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지하수개발회사를 통해 땅을 뚫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마사이 성도들에게 맛보기식으로 보여 준 후, 지하수를 끌어 올릴 펌프와 발전기, 물을 보관할 물탱크 등을 설치하기 전에 NGO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들은 일반 NGO 가 아닌 이슬람 단체였다.

이슬람 단체에서 마사이 땅에 지하수를 파 주겠다하면, 예수님 믿는 마사이들이 거절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먼저 물 맛을 보여준 이후에 자신들의 정체와 진짜 목적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다.

기독교 선교사가 와서 한 일은 자기들이 필요한 교회(예배당)만 짓고, 정작 마사이 땅에 필요한 학교와 병원, 우물에 대해서 해 주지도 않는다면서, 자기들에게 마사이 땅의 일부만 내어준다면, 마사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해 줄 수 있다면서 '땅'을 요구했다. 땅을 주면 마사이들에게 꼭 필요했던 우물과 학교와 병원을 지어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마사이 땅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는 것이었다.

나이보르소티개포교회 성도들은 이슬람 NGO를 통해 파 놓은 우물을 덮어 버리고 떠나라고 했다. 교회가 세워진 자신들의 마을에 이슬람이 들어 올 수 없다하며 땅을 줄 수 없고 우물도 덮고 떠나라고 했다.

마을의 필요보다 믿음을 우선시 하고 지킴으로, 그 이후에 마사이 다른 지역에까지 우물과 학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마치며

현지교회 협력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다음의 말로 정리하며 마치고자 한다. 선교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것은 아니다. 선교 협력을 해 나갈 때도 현지교회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현지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후원교회의 동참이 필요하다.

선교사 주도로 현지 성도들의 인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현지인 주도로 교회의 일을 결정하게 하면 현지인들은 책임진다. 그래서 선교사의 교회, 음충가지 배(배목사), 코리안교회가 아닌 마사이 교회, 자신들의 교회가 된다.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선교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 받고 선교지에서 사라져야 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라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사이 광야에서 일정기간 쓰임 받다가 사라질 선교사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현지교회가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때에 따라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란다.

현지교회협력 분과위원회 토의 결과

위 원 장 주성웅 선교사(인도네시아)

서 기 김윤식 선교사(케냐)

참석선교사 (총 29명) 남수단, 네팔, 대만, 몽골, 베트남, 부르키나파소, 인도네시아, 요르단, 조지아, 잠비아, 필리핀, 케냐, 탄자니아, A국, 호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남수현부장

*** 진행과 나눔**

1. 각자의 소개와 선교 사역을 나눔

선교사가 섬기는 나라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사역에는 동일하다.

2. 현지교회협력을 하면서 경험한 것과 필요한 것

1) 현지교회와 지도자(목회자)에 대하여 존경과 존중이 필요하다.

2) 현지교회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현지교회의 상황과 구조,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현지교회 리더십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현지교회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다려야 한다.

4) 감리교회는 다양함 가운데 하나를 지향하는 교회인 것을 선교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현지교회와 협력을 위해서는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관계 형성에 있어서 신뢰가 기본이다.

6)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성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일상의 언어, 사역의 언어, 영적인 부분까지 움직일 수 있는 언어)

7) 현지교회와의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8) 현지교회에 정치적 마찰이 생겼을 경우 선교사는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9)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르는 사역이 아니라 현지교회의 시간과 속도에 따라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꾸준히 기다려야 한다.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는 선교사에게 사역의 주도권을 주고 또한 선교사는 현지교단(교회)이 주도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선교사는 현지교단(교회)를 기다려주고,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기다려 주는 관계가 필요하다.

사역별 발제 ③ 신학교

『 인도선교와 신학교 사역 』

김대균 선교사(인도)

선교지에서의 신학교 사역은 그 나라 안에서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전임 사역자를 길러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인도 땅에 도착하여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60 만개의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제일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인도 형제들과 같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힌두와 무슬림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면서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사역하려면 책임감 있는 목회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역자가 없이는 '미전도 지역 교회개척' 사역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교회를 이끌 젊은 리더들을 빨리 빠른 시일내에 발굴해 낼 수 있는 길은 신학교 사역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2001년 이전에는 '새생명 신학교'를 세우신 인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신학교 사역을 도우며, 또한 함께 교회 개척사역을 하다가 2001년에 독자적으로 신학교 건물을 세우고 '베델 새생명 신학교' 라는 이름으로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신학교는 인도에서 제일 복음화가 되지 않은 남인도의 '카르나타카' 주와 복음화 율이 낮은 북인도 지역을 타겟으로 하여 선교 지향적인 신학교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1. 신학교 사역의 목표와 방향성

인도의 복음화율은 매우 낮지만 복음이 2,000년 전부터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전파된 교파와 교단의 교회들과 신학교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신학교를 시작할 때에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울러 '왜 내가 시작하는 신학교가 꼭 인도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끌고 있는 신학교 사역이 인도 땅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분명한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교의 열매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인도에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Bethel New Life College' 신학교는 신학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영성의 확립과 전도와 선교의 강조점을 많이 반영하는 선교 지향적인 신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Spiritual Emphasizing Days' 와 같은 부흥회 그리고 '열방 금식기도회(Fasting Prayer for All Nations) 그리고 국내.해외 전도여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신학교육과 제자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

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역을 하던지 우리의 선교 목표와 지향점은 '제자화' 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신학교 사역은 신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사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역자를 만드는 훈련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선교 단체의 '제자화'의 목표를 뛰어 넘어서 전문적인 개척자, 목회자, 성경 교사와 영적인 리더가 되도록 저들에게 전문적이고도 깊은 훈련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대 신학교 교육은 말씀을 객체화하여 분석하고 이성을 통하여 추론하고 연구하는데 치우쳤으며 커리큘럼의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삶과 적용시키는 훈련의 부재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삶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선교지에서의 신학 훈련의 시행착오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3. 신학교 교수와 멘토링 사역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화하기 위하여 가르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과 모델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방법과 모델로부터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더 좋은 제자화와 멘토링 사역을 신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신학 교육은 강의실에서 신학적인 강의를 듣는 것에 많이 치중해 있고 실제적으로 신학교 교수님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보거나 그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상담해 주고 돌보아 주는 것을 보고 배우는 모델링 교육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의 신학 교육은 학생은 많고 선생님은 제한되어 있으며, 학생들조차 누구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지 모델링의 대상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신학교 구조에서 제자화 사역을 할 수 좋은 방안의 하나는 셀그룹이나 패밀리 그룹을 만들어서 소규모의 학생들과 교수님이 함께 1~2년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의 삶의 지도자와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멘토링 사역을 접목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매 주 실시하는 기도회 그룹과 가족같이 만나는 패밀리 그룹을 실행하고 있으며 전도여행 시에는 항상 교수님들이 팀 리더가 되어 전도 활동에 모범을 보이면서 학생들을 훈련하고 있다.

마치는 말

신학교는 정보와 지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장소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 그리고 세상을 변혁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세계관의 통찰력을 갖도록 길러내는 곳이어야 하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과업을 온전히 완성해가는 신실한 종이 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장소가 되어야만 한다. 인도는 오래된 복음 전파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의 많은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족속들이 존재하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인도의 교회 지도자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를 만들어내는 리더가 되어야 하고 신학교는 그러한 비전으로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우리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신학교가 주류 신학교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학교가 될 수 있다면 그 신학교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와 근거의 동기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사역별 발제 ④ 비지니스

『 자립(BAM) 비즈니스 』

강기종 선교사(스리랑카)

감리교 사업 선교의 시작

a국 이00 선교사님의 비전으로 모임이 시작되고 몇 번의 선교 포럼이 해외와 국내에서 열리며 꿈이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또한 커피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손 선교사의 활약도 대단하였습니다. 저도 커피 학교를 통해 배우고 발전시켜서 커피 로스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선교 비전의 시작과 시행착오

2004년에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일어난 쓰나미로 스리랑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엔지오와 같이 현장을 다니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사업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 배터리 사업, 생선 건조 사업, 코코넛 수출, 참치 잡이 사업 등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저는 모든 사업에서 실패를 하고 실의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시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요리와 음식재료 등에 노하우가 있던 저와 아내는 김치를 한인 마트에 납품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것을 점차 발전 시켜 집에서 하는 반찬 가게, 그리고 망한 식당을 인수하여 이제는 두 개의 한인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비즈니스로 아들 둘이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리랑카에서 잘 알려진 식당이 되고 완전한 자립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시도들....

1.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결국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
3.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하는 경우.
4. 뭐 하면 돈 벌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을 따라가기.

좋은 시도들....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라. 자기가 관심있고 좋아하는 것을 하라.
돈을 투자하는 것은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때.
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공부방. 피아노 교실, 미술 교실 등.
실력을 기르라. 실습, 연습, 훈련 받아라.

사업선교의 개념. BM과 BAM의 다른 의미

1. 돈 벌어서 선교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2. 돈 버는 것이 선교가 되었으면...
3. BAM 이라는 개념, 선교로서의 사업

무엇이 다른가?

전자는 돈 버는 것과 선교하는 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돈이 선교하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방법론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후자는 사업하는 것 자체를 선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만 되어도 사업장이 달라 보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그래서 다르게 대우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립(BAM) 비즈니스 회의 목표

1.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 네트워크 및 자료 만들어서....
2. 앞으로 비즈니스 하고 싶은 분들 실패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도와주기.

그래서 자립 선교회는 각 나라에서 사업을 통한 자립과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교제하며 돕기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크던 작던 현재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계신 분들과 앞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카톡 주시면(카톡 아이디:lankakang) 자립(BAM)비즈니스 회 밴드로 초대해 드립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주저 마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들

1. 감리회 안에 자립 비즈니스 조직 및 모델 만들어 가기.
   조직을 만듦에 있어서 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직업 전문인을 아우르는 조직.
2. 한국에서 백업 할 수 있는 회사 설립하기
3. 각 직업 및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훈련 아카데미 만들어 가기.
   식당 : 한식, 피자, 까페, 미용실, 제과 제빵 등은 현재 가능한 부분.
   앞으로 농업, 축산, 무역 등등 필요
4. 전 세계 자립 비즈니스 잘 하고 있는 단체, 혹은 개인 등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해야 함.
5. 감리회 나라별 자립 비즈니스 네트워크 만들기.

이상입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 동안 연단시켜 주시고 실패를 통하여 많은 경험을 하게 해 주셔서 저는 성장할 수 있었고 재물이라는 맘몬의 세계에서도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많은 비즈너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지니스 분과위원회 토의 결과 및 앞으로의 과제

1. 자립 비즈니스회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 자립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을 네트워킹 한다.

2. 자립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BAM 교육하는 기관, 목사, 교수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온·오프로 개설한다.

3. 자립 비즈니스회는 여러 선교단체와 BAM 기업과도 MOU를 맺고 협력과 자립에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4. 현장(선교사), 기독실업인, 선교단체, 학자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포럼을 열어 BAM의 정신과 BAM 선교사를 발굴하고 파송될 수 있도록 힘쓴다.

5. 82개국에 자립 비즈니스회 협력 선교사를 두고 각 나라의 기업 환경과 정보 등을 통하여 수출과 수입에 대한 BAM 비즈니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한다.

6. 선교사 자녀들을 비즈너리로 세우는데 힘쓰며 또한 현지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에 힘쓴다.

사역별 발제 ⑤ 한인교회

『 연합을 이루는 한인교회 』

양대순 선교사(남아프리카공화국)

1. 케이프 타운 우리교회 창립 배경, 이유

해외에서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은 한인교회에 다니길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교단이 다르고 목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행동과 옷을 입는 것도 죄라는 정죄의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니,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행복보다는 죄인이라는 정죄로 힘들어 했습니다.

한인교회가 여러번 나뉘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갖고 교회를 멀리하다보니, 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만, 교회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한인교회를 묶어줄 연합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연합을, 우리가 해보자는 감리교 선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 케이프 타운 우리교회의 특징점

시작은 감리교회 선교사 5가정이 함께 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5가정이 함께 했기에 사례비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고, 시작부터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의기투합 하면서, 각자 맡은 부서를 나눠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설교는 돌아가면서 했고, 청년들도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시작한 5가정 중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목회하는 가정이 있고, 선교에 전념하기위해 빠진 가정과 한인교회 사역은 파송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아, 지금은 두 가정이 공동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케이프 타운에 있는 4개의 한인교회가 지난 2022년도부터 연합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아름답게 해냈고, 아이들은 다시 모이고 싶어해서 연합 찬양 예배도 드렸습니다. 올해도 연합 수련회를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인 공동 목회의 장단점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3. 공동 목회의 장점과 단점.

▶ 장점

1) 우리교회 공동 목회는 담임제를 없애고, 한 해마다 돌아가며, 대표를 합니다.

2)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3) 협력하는 한광유 선교사님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대응해 주십니다.

4) 요청하는 모든 것에 긍정적이십니다.

▶ 단점

1) 책임소재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미루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2) 아직은 그렇게 큰 단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3) 각자 맡은 자기 역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다보니, 보완이 서로 잘 됩니다.

4. 선교사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점.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은 신앙을 한국인의 언어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로 드리는 예배의 느낌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로 된 예배가 필요합니다. 선교할 때는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지만, 모국어로 예배할 때는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인들도 선교하고 싶어하고, 선교하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교회 교인들은 선교의 귀한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지역적 선교역량 발굴의 기회로 삼는다 – 한인교회의 잠재적 신앙인들을 돌보고 양육함)

한인교회 분과위원회 토의 결과 및 앞으로의 과제

한인교회 분과는 5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이셔서 함께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태국의 윤광섭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은모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박효준 선교사님, 라오스의 변종승 선교사님, 남아공의 양대순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케이프 타운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1개의 한인교회가 팬데믹 기간에 문을 닫았고, 지금 남아있는 4개의 한인교회는 어렵다고 합니다.
케이프 타운은 40% 이상의 한인이 빠져나갔고, 경험 사례를 나눠주신 다른 나라에서는 60%의 한인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교인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이 어려움이 생기고, 영적 부분의 연약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 사례에 의지하는 교역자 또는 선교사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다음은 하나의 사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프 타운 한인교회 우리교회는 선교사이면서 사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기에, 시작부터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운영비를 각출해서 운영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마스크 만들기, 긴급한 가정을 위해 음식 Box 나누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신앙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여명의 교인들이 협력하여 3,000장의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마스크를 만드는 날들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으로 선교지를 옮긴 목사님을 은혜롭게 후원하는 우리교회가 되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후원하는 우리교회 모습에 성도님들은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의 집을 수리하며(타일 교체, 벽에 못을 박고 벽걸이 시계 걸기, 이사 도움, 수도꼭지 교체 등) 솔선수범하여 섬기는 모습에 성도님들이 항상 고마움과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성도님들도 보고 배우셨는지 소소한 일부터 출석 교인이 아니지만 장례 예배 인도까지 음식 준비를 돕고 장례 물품 준비도 도우며 함께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는 행복하게 선교하며 우리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별 발제 ⑥ 교육

『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한 태국에서의 교육선교에 대하여 』

김교묵 선교사(태국)

1. 들어가는 말

교육선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의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상황에 따라 공부방 형태의 구조에서 서민들을 위한 사립학교 또는 중산층이나 그 이상의 위치에 있는 대상을 위한 사립학교 또는 국제학교의 형태로 나뉘어 지빈다. 그 외에도 구가별 종교적, 법적인 상황에 의해 그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학교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2. 교육선교의 의미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에게 불교는 종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며 역사이고 삶이고 가치관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낯선 종교인 기독교를 전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 동시에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문화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기성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선교는 사회 문화적 적응을 하며 성장하기 시작하는 유년기 청소년기의 세대에게 복음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있다.

3. 기독교 국제학교의 선교적 의미

태국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는 나라이다. 태국의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불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의 전통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규 과목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매주 예배(채플)를 통해 학생들에게 예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태국의 경우 전체 크리스천 중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하거나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계층이 다수이다. 그런 이유로 교회와 크리스천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나 리더십이 미미하여 선교사의 도움없이 자립교회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가 무척 어렵다.

그런데 국제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가정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들이고 국제학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한 캠퍼스에서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최대 16년까지 한 학교에서 지속적인 기독교 교육을 받고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하기에 빠른 시간 안에 열매들을 거둘수는 없지만 10~20년 후에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으로 거듭나 성장한 사회적 인재들이 사회 곳곳에 지도층으로 세워진다면 기독교 부흥의 봇물이 터질거라고 예상한다.

4. 국제학교의 설립과정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절차와 조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태국의 경우에는 땅이나 건물을 임대하여 시작할 경우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초등학교까지의 과정인가에는 최소 부지가 1,200평에서 중·고등학교 까지의 설립허가를 위해서는 2,400평의 대지가 있어야 허락이 된다. 전체부지의 30% 이상은 녹지로 조성이 되어야 하며, 건물마다 교실의 넓이와 계단 복도의 넓이에 대한 규정이 일반 태국학교보다 더 엄격한 조건이 있다.

학교의 설립허가증은 반드시 태국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설립을 위해서 요구되는 문서의 종류는 20가지 이상이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커리큘럼을 사용할 것인지와 재정을 포함한 기본적인 학교 운영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 사역을 준비한다는 것은 많은 예비적인 준비와 협력자들이 요구되는 사역이다.

5. 기독교 학교의 운영

학교는 사실 한 개인의 능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가 없다. 수많은 조력자가 필요하다. 적절한 교육을 받은 현지인과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된 영어권 교사들이 학교가 시작되는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 된다. 사실 물리적인 건물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교과과정을 해당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교과과정으로 할 것인지 설립자가 직접 만든 교과과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국제학교들이 사용하는 미국식 또는 영국식 교과과정을 다를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교과과정은 서론 부분에서 설명한 교육의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의 형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늘 재정적인 부족함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때문에 학교를 설립하게 된 기본정신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와 직원들의 팀웍이다. 기독교 학교에서의 팀웍은 영적인 협력과 서로에 대한 동기부여와 격려이다. 일반적인 국제학교들의 경우 교사들이 2-3년 주기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도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이기에 적응에 대한 문제도 있고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일자리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교사들이 오랫동안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많은 요건들이 잘 맞아야 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학교로서의 영적인 정체성과 팀웍을 잘 만들어가는 일이다.

좋은 교사를 수급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안고 있는 영원한 숙제이다. 학교의 운영진은 계속 네트웍을 만들고 교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학교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학생들이 있어도 좋은 교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육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포 2,3세대 중 거듭난 크리스천이 교사로 지원하는 방법이 모색된다면 큰 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본다.
좋은 크리스천 교사들이 긴 시간 함께 일하며, 팀웍이 잘 준비되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지라도 기독교학교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며 선교자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기반이 잘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6. 나가는 말

교육선교, 특별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선교는 한국교회에서 아직까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 부흥의 큰 초석이 될만한 일이라면 한국 교회의 협력과 헌신으로 이 일들을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간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져가고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선교의 전략적 모색이 필요한데 그 대안 중의 하나인 교육선교에 한국교회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오래 걸린다 해도 마침내는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방법이라면 주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분한 사전의 준비와 팀사역과 후원자 그룹도 동일한 비전을 나누며 확대하여 간다면 정말 해볼만한 의미있는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역별 발제 ⑦ 팀협력

『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한 팀, 협력 선교에 대하여 』

남창기 선교사(필리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그런데 함께 가려면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들,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팀 선교, 협력선교가 어렵다. 팬더믹을 경험하며 협력, 동역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선교지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사역들이 요구되어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런 요구를 감당하기에 영,육간에 벅찬 부분들이 많이 있다.

데이빗 바렛(David Barret)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700개 계획'에서 "전 세계의 교회는 이미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풍부한 하나님 자원과 경험을 모아 선교하는 협력 선교 틀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야 한다.

1. 팀, 협력 선교의 중요성

우리의 선교 현장은 더욱 다양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선교사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선교자원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또한 선교 현지 교회나 교단과의 협력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며' 각자의 은사들을 내어 놓아 은사간의 협력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말씀하고 있다.

2. 팀, 협력선교의 필요성

1) 하나님 나라/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는 선교 모델 구축
2) 선교지에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의 동원이 가능
3) 다양한 사역의 확장과 사역의 질을 높일 수 있음
4) 선교지의 다양성과 복장성/전문성의 한계 극복이 용이
5) 선교 초기의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적응 비용 최소화
6) 선교의 동력과 지속성을 높이며 항시적인 출구 전략을 위해
7) 선교사간 상호 영적 버팀목과 영적 성숙 및 리더쉽을 위해
8) 시스템 구축으로 선교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선교사의 신뢰 증진을 위해

3. 팀, 협력선교의 어려움(장애 요소)

1) 선교에 대한 이해와 비전 결핍
   "선교는 하나님 선교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성을 이루어 가는 것. 개인의 선교가 아니다", "선교는 동역으로 이루는 공동의 사역"이라는 선교에 대한 이해와 비전의 결핍
2) 개인적인 사역의 요구와 욕구가 다를 수 있다.
3) 개인적인 것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다.
4) 파송 교회나 선교사가 특정 선교사의 선교를 돕는다는 인식 존재
5) 리더쉽의 충돌
6) 재정 투명성 지키기
7) 은사와 역할 차원의 협력이 아닌 권위주의, 서열의식으로 인한 불편함
8) 조급성과 비교의식
9) 의존성, 책임 회피, 적당히 하려는 마음

4. 팀, 협력사역 장애 요소 해결하기

1) 하나님 나라 / 하나님 선교에 대한 이해와 공유
2) 팀, 협력선교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갖고 선교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비전을 공유
3)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는 마음
4) 팀, 협력사역에 대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5) 공동체 사역을 위한 시스템 구축(기도회, 공동 예배, 운영 시스템)
6) 재정 투명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7) 현지인 리더들과 동역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 시스템(리더쉽 충돌 최소화)
8) 개별 사역에 대한 오너쉽 보장
9) 리더쉽의 더 내려놓는 자세
10) 개인적인 욕심과 비전을 세워 나가고자 함을 내려놓고 동역자들과 함께
11) 팀, 협력사역의 개방성 확대(Platform; 오는 자/떠나는 자)
12) 언어와 문화 이해에 대한 충분한 오리엔테이션과 적응 시간 보장

팀협력 분과위원회 토의 결과 및 앞으로의 과제

분과 토의에는 동역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들, 지금 동역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앞으로 동역사역을 계획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팀, 동역사역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선교지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다양한 선교자원을 모으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선교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동역하는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내부적인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쉽게 시도하지 못하게 되거나 시도 후 머지않아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나눔 전에 각자의 선교지 상황을 나누는 인사 시간 후 분과 토론이 시작되었고 먼저 팀 선교와 협력 선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각 용어에 대한 정리가 시작되었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사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팀을 꾸려 진행하는 것이 팀 사역이고, 협력사역은 다양한 사역을 함께 모여 각자 사역을 담당하여 사역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이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나서 공통적으로 수긍하고 또 동의한 내용은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분류와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역 선교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사항은 하나님 선교를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용하려는 마음과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데 마음을 모았다.

팀 선교와 협력 선교를 해 나갈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재정 투명성 문제이다. 재정의 공유 또는 분담을 통해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준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 관리 및 보고하는 것은 동역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팀 선교와 협력 선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거론된 것이 동역사역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야 하고 비전을 공유하야만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의 경험이 다른 상황에서 팀 선교와 협력 선교라는 틀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겠다고는 하였다.

또한 같은 분야와 사역이 중복되는 등 그 안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사전 의사결정을 위한 서로 간의 명확한 규정,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팀 선교와 협력 선교가 처음부터 모든 구성원이 같이 출발하여 시작되었다면 괜찮겠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선교사역에 새로운 구성원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 기존 사역은 나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그에 맞는 위치를 정확히 만들어 주고 또한 새로운 구성원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팀 선교와 협력 선교가 실패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조직화의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사역에 있어서 지도력은 필요하고 전체적인 사역을 이끌어가고 행정적으로 일들을 맡아야 할 리더는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수직적인 조직이 갖춰지다 보면 이 구조 안에서 갈등이 발생

하고 분쟁과 이탈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도 모든 참석자가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각 조직 기능의 리더는 구성원들을 돕는 자로서 섬기는 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리더들이 더 내려 놓아야 동역이 잘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사역 내용을 분야별로 나누고 각 분야에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이 맡은 분야에서는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결책도 제시되었다.

또 한가지는 동역 파트너를 받아드릴 때 어떻게 그 선교사의 인성, 인품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충분한 동역사역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나누는 것 이외에 개인의 성향과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토론이 진행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내용의 발언이 있었다. 팀 선교와 협력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보면 평신도 선교사들은 잘 순종하고 또 다툼 없이 잘 협력하여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목회자 선교사들의 경우 파송 교회와의 관계,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내 것, 내 사역지에 대한 집착과 집중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팀 선교와 협력 선교에서 이탈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목회자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제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함께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고 더불어 한국교회가 동역선교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이제 팀 선교와 협력 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선교의 방식이 되었다. 이제 현장의 선교사들뿐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훈련원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는 교단의 선교국 모두가 팀 선교와 협력 선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내는 곳만이 아닌 선교의 현장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 동역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